

수변도시 조성사업 '청신호'

익산시 만경강 일원 입주 의향 관심 높아... 사업추진 행정 절차 속도

익산시가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에 추진 중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명천 익산시 건설국장은 5일 시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결과와 기대효과, 앞으로의 추진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전문용역 기관에서 분석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B/C(비용편익분석) 1 이상이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익산시를 포함한 도내 인접 도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

상으로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이번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7.4%로 타지역에서도 수변도시 조성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지구 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대상자는 54.7%로 이를 인구수로 환산한 결과 무려 9만 3000여명의 수요가 확인됐다.

특히 전주와 군산, 김제 등 주변 지역에서 사업지구로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도 38%로 나타났으며, 이는 2만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 민간사업자 공모와 민관 합동 SPC 설립 등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용역이 종료되면 곧바로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추가 행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업참여 의향을 내비치는 등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5일 부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게 2021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 동참”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대한적십자사에 특별회비 전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5일 부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게 2021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영일 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군산적십자사 평생대학 최용희 학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김인성 회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군산시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코로나19로 힘겨워진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또 예년과 같이 지진, 호우, 화재 등 자연 재난과 위기 가장 및 소외 계층 등 사회적 재난의 긴급 구호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을 전하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부문화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코로나19 특별 합동점검 시행

군산시 · 군산경찰 오후 10시 전후 유흥시설 밀집지역 중심

군산시와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대응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위생행정과 안전총괄과 군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특히 영업제한이 시행되는 오후 10시 전후로 유흥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시행의 내용이 포함된 제1호 명령을 전북경찰청장에 지휘했으며, 이번 합동점검은 지휘명령의 맥락에 따라 시와 경찰서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역업체 분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여기서 방역의 고삐를 한 번 더 점검하지 않

으면 우리 모두는 그 회복이 불가능한 미래를 맞이 할 수도 있다”면서 “시민의 평범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제한되며 식당이나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농협, 사랑나눔 백미 10kg 200포 라면 5박스 전달

군산시는 군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박형기)이 폭염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백미 10kg 200포와 라면 5박스(총 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상품 중 백미는 지난 7월 20일 군산농협 본점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 당시 축하 화환 대신 기탁받은 물품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 될 예정이다.

박형기 조합장은 “전달된 상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 살기좋은 군산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농협협동조합은 지난 1972년 설립 이후 40여년 이상 지역 사회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에 힘써 왔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현판 제막식

군산시는 시청사 앞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 아동권리가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건설을 다짐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6년 아동친화도시 신규인증 이후 4년간의 변화와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뤄진 것이다.

현판 제막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김영일 군산시의회 부의장 및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 군산교육지원청 박일관 교육장 등 아동 관련 기관·단체장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어린이·청소년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은 “군산의 모든 아동들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조성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15대 중점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과 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교육생 모집

군산시는 옥상태양광(100MW) 연발 상업용전 등 새만금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새만금신단(RE100) 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유지보수 인력 양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재직자 과정(5일), 취업자 과정(20일), 전문가 과정(40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300여명의 교육생 배출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1,2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계, 시설·안전·행정관리, 최신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기술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군산=고병만기자

군산시민의 장 후보자 시민의견 수렴

군산시는 제59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 수상할 군산시민의 장 후보자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민의 장 9개 분야 중 문화예술체육장 1명, 애항봉사장 6명, 산업장 1명, 노동장 1명, 시민의견장 1명, 농림수산장 1명 등 6개 분야 11명에 대한 접수를 마쳤다.

이후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시민참여서비스 → 설문조사란을 통해 수상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의견 수렴과 공적 현직조사를 8월 중으로 마치고 오는 9월 초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의 장 수상자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민의 날은 오는 10월 1일 시청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으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기념행사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